

Speed



스피드

Greetings

작품을 준비하며 지난 50년 간 서울시무용단이 한국무용창작에 기여한 바를 반추해봅니다.
서울시무용단이 남긴 창작 작업의 유산들은 한국 무용계에 새로운 이정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한국무용은 더이상 한국무용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확장된 미학과 기능성의 실험들이 대중에게 스며들며 한국적 컨템퍼러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무용단의 신작 <스피드>는 한국춤의 내재적 에너지를 통해 발현되는 확장된 움직임을 강조하는 한국적 컨템퍼러리 작품입니다.

스피드를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연습량과 에너지로 땀 흘려준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작품이 실현되도록 모든 살림과 행정을 도맡아준 세종문화회관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함께 완성시켜 준 제작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작품의 완성을 위해 배려하고 이해하는 멋진 콜라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작품을 완성시켜 줄 또 다른 제작진입니다.

4월에 어느 멋진 날이 <스피드>와 함께여서 더욱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무용단장 **윤혜정**

Choreographer's Note

<스피드>는 한국무용 컨템퍼러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이었으면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한국춤의 시작을 생각했을 때, 그곳에는 장구장단이 있었다. 장단과 가락의 종류가 한국춤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들어냈다. 이 시대 컨템퍼러리는 장르는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무엇에 공감하며 움직일 수 있을가에 대해 질문했다. 장단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우리의 움직임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뒤, 장구를 매개로 속도의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했다.

오늘날 우리는 '빠름의 시대'를 산다. 더 빠름을 추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렇다면 한국춤은 이 시대의 빠름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빠른 속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무대는 '장구의 울림통'을 을 형상화 했다. 단면으로 잘린 장구통의 형태는 마치 모래시계와 같았고, 그 이미지는 멈추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을 상징한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각자 동일한 시간을 빠르게도, 느리게도, 전혀 다르게 체감하며 살아간다.

이 작품은 각자의 속도감 차이에 주목하며, 모두가 추구하는 '빠름'의 절정 그 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무용수들 개개인은 장구 울림통 속의 물리적 파동들이다. 무대는 장구 안에서 울리는 리듬의 공간이 되고,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장단의 빠르기에 따라 리듬과 선율에서 밖으로, 엇박으로, 그리고 점점 가속으로 치달는 스피드를 표현한다.

Speed began with a desire to explore the identity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When considering the origins of Korean dance, there was the janggu and its rhythmic cycles. The diverse rhythms and melodies of jangdan gave rise to a wide repertoire of Korean dance. This led to the question: What can the genre of contemporary dance hold today? What can it move with—and and resonate with?

We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variety and expansiveness of jangdan could serve as a source for developing and transforming movement. Thus, the janggu was chosen as a medium through which to explore the idea of speed.

Today, we live in an "age of speed." We constantly seek faster ways of being, growing impatient with waiting or holding back. So then—how might Korean dance contain this rapid pace? What can we express through speed? These questions became the central theme of this work.

The stage was designed to evoke the janggu's resonating chamber. When sliced in cross-section, its hourglass-like form symbolizes the steady, uninterrupted passage of time. Within that flow, each person experiences the same time differently—quickly, slowly, or in entirely unique ways.

This piece focuses on our differing perceptions of tempo, posing a question: What awaits us after we reach the peak of the "fastness" we all pursue?

Each dancer becomes a physical wave form resonating within the body of the janggu. The stage transforms into a space where rhythm reverberates from within the drum. As they move with the tempo of the jangdan, the dancers express rhythm and melody that shift from steady beats, to syncopation, and finally into an accelerating surge of speed.

장구 안의 우주, 그 속도의 스펙트럼

드라마투르크 김지연

재미있게 보았던 애니메이션에서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는 초속 5cm라고 했다. 이 속도로 낙하하는 꽃잎에 대한 속도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흐르는 마음의 속도를 은유했던 이 물리적인 사실, 동시에 감각적으로 느리게 다가오는 속도감이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하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꽃의 계절을 향한 아쉬움의 정서를 담았다.

벚꽃이 피고 지는 이 시기, 서울시무용단은 '속도'를 주제로 한 신작을 무대에 올렸다. 속도가 일상적 기준이 되고, 서열이 되고, 생존의 조건이 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속도 위를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의 리듬은 그 흐름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 해 있을까? <스피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안무가 윤혜정은 장구의 내부에서 시간의 구조를 발견했다. 장구통을 단면으로 자르면 드러나는 곡선은 모래시계를 닮았다. 시간을 담고, 시간을 떨어뜨리는 구조. 무용수는 그 안에서 장단이 일으키는 리듬을 감각한다. 리듬은 단순한 박자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이고, 움직임의 근거다.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몸은 이미 리듬을 기다리고 있다. 느림은 멈춤이 아니고, 빠름은 경박하지 않다. 그 사이를 밀고 당기며 균형을 찾아가는 감각이 한국춤의 본질이다.

안무는 속도를 읽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빠르거나 느리다는 판단 이전에, 그 속도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체감 되는지를 묻는다. <스피드>의 무용수들은 자신의 호흡과 감정, 기억이 작동하는 리듬을 따라 움직인다. 그것이 군무와 단절되기도 하고, 흐름 속에서 예기치 않게 어긋나기도 한다. 중심은 장단이지만, 움직임은 결코 그 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윤혜정은 균일한 속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리듬 안에서도 움직임의 크기, 힘의 세기, 정서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들을 관찰하고, 그 틈을 무대로 옮긴다.

무대디자인은 장구의 울림통을 단면으로 자른 구조에서 출발한다. 이 곡선은 단지 조형이 아니라, 시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다. 무용수는 곡면 위를 움직이며, 직선의 속도에서 벗어난다. 리듬은 바닥에 흐르지 않고 공간에 퍼지고, 무용수는 그 안에서 밀려오고 밀려 나가는 시간의 파동을 감지한다. 관객은 외부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구 안으로 함께 들어온다.

<스피드>는 장구의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 안무의 결을 짠다. 무용수는 그 속도에 반응하거나, 때로는 거슬러 움직인다. 어떤 몸은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어떤 몸은 흐름을 비껴간다. 움직임은 박자를 따르지 않고, 박 사이를 살아간다. 그 틈에서 시간은 밀도와 방향을 얻고, 감정은 운동성을 띤다. 리듬은 단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과 마음을 견인한다. 춤은 속도를 체감하는 통로가 되고, 그 체감은 감정의 상태를 상상하도록 만든다.

음악은 이 리듬의 속도를 확장한다. 황민왕은 아날로그 장구로 리듬의 토대를 다진다. 장구는 타악이지만, 그 울림은 단순히 두드리는 소리를 넘어서 신체에 닿는 파동으로 작동한다.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는 디지털 사운드를 통해 그 토대를 흔들고 변형시킨다. 어쿠스틱과 디지털 사운드는 서로를 압도하지 않는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든다. 거친 질감과 부드러운 질감이 공존하고,

그 사이에서 리듬은 유희적인 긴장감을 획득한다. 리듬은 무용수를 이끌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한다. 장단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움직임의 불러일으키는 파동이며, 감정이 머무는 진동의 공간이다.

이 공연은 음악과 영상 또한 즉흥으로 이루어진다. 무대 전면 상단에 자리한 두 명의 뮤지션과 비주얼디렉터는 무용수들의 흐름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호흡으로 반응한다. 이들은 무대의 리듬과 실시간으로 교감하며 사운드와 이미지를 조율한다. 정해진 틀을 벗어난 즉흥의 긴장감은 속도의 개념과 어우러져 강한 생동감을 만들어 낸다. 움직임과 사운드, 이미지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형성하는 밀도는, 그 즉석에서만 가능한 리듬의 스펙트럼을 완성한다.

의상디자이너 민천홍은 한국 전통복식의 유려한 감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이어지는 의상의 흐름은 시간의 농도를 시각화하고, 발(발)을 감싸는 붉은 색은 리듬의 동선을 지탱한다. 이 붉은 색은 단순한 시각적 강조가 아니라, 발의 무게중심을 안정시키며 속도의 중심을 형성한다. 상체는 움직임의 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하체는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의상은 성별의 기호를 제거하고, 리듬에 반응하는 몸 자체로 무용수를 환원시킨다. 웃은 입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리듬의 일부가 된다.

비주얼디렉터 이석은 리듬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장했다. 영상은 무대 바닥에서 시작되어, 무용수의 움직임과 실시간으로 교차하고, 점차 우주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시간은 점이 아니라 궤도가 되고, 무대는 평면이 아닌 입체의 감각으로 변모한다. 영상은 장면의 배경이 아니라 리듬을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도구이며, 관객의 감각을 무대 안으로 이끌어 들인다.

조명디자이너 개러스 그린(Gareth C. Green)은 빛으로 정서를 설계한다. 모노톤의 조명은 특정한 감정을 유도하지 않고, 감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빛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면마다 감각의 긴장을 불러낸다. 그림자는 질문을 남기고, 어둠은 감정의 잔향을 품는다. 빛은 리듬의 농도에 따라 움직이고, 그 속에서 무용수의 몸은 확장되거나 축소된다. 조명은 춤과 함께 리듬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속도는 물리학의 개념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권력의 은유다. 빠를수록 앞서고, 빨라야 살아남는다. 속도는 경쟁의 윤리를 정당화하며, 인간의 리듬을 벗어나도록 압박한다. 폴 비릴리오(Paul Virilio)가 '질주학'을 통해 지적했듯, 속도는 기술, 정치, 전쟁, 경제, 감정 구조 모두를 지배한다.

<스피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빠름을 감각화하고, 빠름에 질문을 남긴다. 속도는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 각자의 감정, 기억, 호흡이 만들어내는 리듬은 제각기 다른 파형을 갖는다. 그 차이가 충돌을 만들고, 무대는 그 긴장감으로 채워진다.

기술의 진보를 찬양하지 않는 이 작품은 '지금 여기'라는 시간의 감각이 감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탐구한다. 장구의 율림과 공명하는 몸을 통해 관객은 자신의 속도를 마주하게 된다. 춤은 결국, 빠름 이후에 남겨진 느낌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스피드>는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니다. 전통의 리듬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하고, 기술과 감정, 질서와 이탈 사이에서 동시대 한국무용의 방향을 탐색한다. 이 접근은 지금 한국무용의 얼굴을 고민하는 서울시무용단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 안에 새로움을 부유시키는 시도. 빠름과 느림, 균형과 어긋남 사이를 살아가는 이 무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묻고, 한국무용이 어떻게 동시대를 호흡하는지를 보여준다.

S
2
5

e e J o n
e a s o

g
n
세종시
존



2025.
8.21Thu –
8.24Sun

One
Dance
일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무용단

연출	시노 그레피	장극장
인무	정혜진, 김성훈, 김제덕	
음악	김제덕	



S
25

e J o n
e a s o

g
n
세종시
극

예술감독·안무	유정
감독	유인성
의상	김지현

2025.
11.6Thu —
11.9Sun

Mimesis 미메시스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무용단



